

공익담당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교육



포천시는 공익담당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서함양과 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난 28일 실시했다.

포천시는 공익담당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서함양과 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난 28일 실시했다.

이날 박은국 포천시장은 자율적이고 내실 있는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수간에 사소한 사건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포천시는 이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요령을 소개하고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자체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서근석 국제능력개발원장이 강사로 나서 '짧은 날의 가치관'이란 주제로 특강을 해 공익요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공익요원들은 자율적 복무분위기 제고를 위해 공익대표자를 선정한 한편, 무단결근과 지각 등의 복무이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성금 300만2천원·전기담요 36점 접수

송우주공4단지 독거노인 전기담요 25점 전달

본지 불우이웃돕기 장구가 연중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성금 및 물품을 접수한 결과 성금 300만2천원이 접수됐고 물품은 전기담요 36점이 접수됐다.

성금은 본지 김종현 조사위원장 이 20만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했고 임경순 본지 주부명예기자단장이 10만원, 고래들 우상준 대표가 5만원, 본지 운영위원으로 포천초등학교 김다현 어린이 기사를 보고 듣고 싶다는 동성유니테크 장재수 대표이사가 50만원을 기탁했다.

또 양동춘 전 로타리클럽 회장이 포천신문사가 좋은 일을 한다며 3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했으며 무봉



본지 운영위원회 권혁은 총무와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박혜자 지부장은 지난 28일 외북초등학교 교정실에서 3학년 전대복 학생 등 5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성금을 전달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북초·포천삼정초·포천초 학생들에게 200만원 전달

리 순대국 이희자 대표(본지 운영위원)가 커피자판기 수익금으로 모은 1백34만2천원을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서금자씨가 2만원을 자동이체로 기탁했고 고남석 포천제일사우나 대표가 사우나를 찾아오는 손님 1명당 100원씩을 모아 53만원을 성금을 기탁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기탁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백형덕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이사가 3만원, 황광익 리더캐미칼 대표이사가 10만원의 성금과 전기담요 36점, 고은미술학원 허정란 원장이 10만원을 기탁해

지난 28일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 와 임경순 본지 주부명예기자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우주공 4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25명에게 각각 1점씩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접수된 성금은 포천초등학교 김다현 어린이 병원비 등으로 100만원을 본지 최호열 발행인이 전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자라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본지 운영위원회 권혁은 총무와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박혜자 포천동지부장은 지난 28일 외북초등학교 3학년 전대복 학생 등 5명에게 10만원씩 50만원을 전달하고 지금은

비록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어 포천삼정초등학교 2학년 김정옥 학생 등 5명에게 10만원씩 5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편,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박혜자 지부장은 지난 28일 오전 신을동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겨울나기를 위해 대청소와 은매트를 전달하고자 포천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과 방문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로 안타까운 마음만 더했다고 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소흘읍축구협의회 이웃돕기 일일 호프

관내 초중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정



소흘읍축구협의회 이진호 회장을 비롯한 각 조기축구회장들이 지난 28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 호프 행사를 가졌다.

8개 조기축구회로 구성된 소흘읍축구협의회(회장 이진호)는 지난 28일 송우리 모 호프집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일일 호프 행사를 가졌다.

이번 성금모금행사는 협의회 차원에서 갖는 2번째 행사로 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소흘읍 축구인들이 모여 꾸준한 이웃돕기 행

를 해 왔다. 성금모금행사를 갖게 된 것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하고 처음에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를 가졌다. 이후 협의회가 구성된 지난해는 모금된 800여만원을 소흘읍 소재 초등학교와 중고교 재학생 중에서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했다.

자연보호환경 제27주년 기념행사

포천시 자연보호협의회(회장 장해광)는 지난 28일 자연보호협의회원과 군인, 환경단체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자연보호헌장 낭독과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김겨 환경보전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웰빙시대! 소비자 요구 상품 생산 절실

(사)한농연 포천시연합회 농업발전 교육 및 토론회



(사)한농연 포천시연합회는 농업경영인들의 농업의지 고취와 포천농업의 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28일 농업발전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한농연 포천시연합회(회장 최병문)는 농업경영인들의 농업의지 고취와 포천농업의 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28일 농업발전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인 박영범 강사를 초청, '시장, 정책, 브랜드 마케팅 및 지역연관'이란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 특히 브랜드의 확립화와 균일화된 지속 공급 가능한 농업산물을 생산하고, 웰빙시대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 때 우리농업의 발전은 지속 가능할 것을 주문

했다. (사)한농연 경기도연합회 김성남 수석부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고품질 포천쌀 생산 전략 및 유통혁신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지정토론자로는 관인농협 이수기 조합장의 '유통혁신 중심'의 발표와 포천시 이흥구 의원의 '농업인의 의지' 중심 발표, 농업기술센터 박기욱 식량작물담당의 '생산관련' 중심 발표, 포천시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생산자' 중심 발표로 열린 토론회이 펼쳐졌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㉘

내촌면 진목1리 이장 이종기

관광농원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내촌면 진목1리는 내촌시내에서 포천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첫 번째 마을로 예부터 오림포로 알려져 있다. '오림포'란 마을의 옛지명은 어진인사 5명이 정착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처음에는 '오인포'라 불리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마을에 나무가 많아져 '오림포'로 부르게 됐다고 전해지며, 마을의 역사는 350여 년으로 추정된다.



이종기 이장 내촌면 진목1리

진목1리는 현재 80세대 3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종 원주민은 55세대 가량으로 외부 유입 주민은 많지 않다.

6년의 청년회장, 5년의 4회 회장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이장을 맡게된 이종기(46) 이장으로부터 진목1리의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특용작물로 '캔버라리' 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이종기 이장은 "생산량의 50%는 개통 출하돼 가산포도 상표로 나가고, 50%는 도로 노지 판매가 이루어진다"며 "마을의 기후조건이 타지보다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심해 당도가 높아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도재배 전량은 비가림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저농약재배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포도"라고 강조했다.

진목1리는 이밖에도 20여년 전부터 배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으며, 나머지는 벼농사를 짓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

마을 조직은 이 이장을 중심으로 흥창기 노인회장, 김재춘 새마을지도자, 윤경애 부녀회장, 홍석현 청년회장, 홍재기 1반장, 신현호 2반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인회는 65세 이상 회원 45명(남 20, 여 25)이 가입해 있다. 청년회의 경우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의 연초 행사는 연초 정월대보름과 솟놀이대회 등으로 마을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여름에는 북날에 맞춰 어르신들을 모시고 보건차원에서 대동놀이를 개최하고 있다.

또 연말에는 주민들이 모여 연말총회를 개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진목1리는 격년마다 4월에 100여명의 노인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엔 예부터 전해오는 전

설이 있다. 내촌시내와 베어스타운 스키장으로 통행하기 위해 지나는 '쑈고개'란 곳이 있는데, 지나는 객들이 오가며 한잔씩만 먹어아만 하는 술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 3잔을 마셔 그곳에 맑은물만 솟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이장은 "요즘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오가는 발길이 드물지만 지금도 물이 좋아 고개를 넘는 주민들의 험터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목1리는 1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어, 농촌 생활의 주민들과 힘겨운 융화를 하고 있다.

이 이장은 "초창기에는 마을 주민들과 일부 업체들과 친목 관계가 돈독했지만, 지금은 기업체들의 사정도 어려워지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개선의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개인별로 관계가 형성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산재한 공장들이 한곳에 집중돼 공단을 형성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토지문제 등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이장은 "최근 1사촌의 일환으로 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바라는 시골마을의 이미지가 기업체들로 인해 경감돼 선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은 마을발전을 위해 관광농원개발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개발을 위해 포천시는 농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 장기적인 행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은 가슴으로, 안전은 지식으로”

산업재해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떤 사고를 신고하나?
  - 사망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 산재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 산재보상을 위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가지중 한가지만 하면 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 자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종전의 년 1회에서 금년부터 년 4회로 늘렸습니다.
  - 자진신고기간은 매분기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의 1일~7일 사이입니다.
-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미신고로 인한 사법처리가 유보됩니다.

